

#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 연구

노효경

대전보건대학교 패션코디컬러리스트과

## A Study of History of Korean Wedding Styling

Hyo-Kyung Ro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 Colorist Dae Jeon Health Sciences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오늘날 웨딩스타일링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웨딩스타일링의 유행경향과 스타일 및 특징을 분석하여 개인의 취향, 개성, 정체성 등이 내재된 웨딩스타일링이 미혼여성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 하고 선호하고 있는 유행 아이템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특징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 되어 왔는지 년대별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의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는 결혼식 때 착용한 웨딩드레스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실루엣, 색상등 디테일의 변화가 있었으며, 개성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확연히 구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도 시대와 트렌드에 따라 선호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 시대별 웨딩스타일링의 유행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웨딩스타일링은 신부의 외모에 뚜렷한 분위기 또는 의미 있는 특징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웨딩스타일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변천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of Korean wedding styling, which has been the basis for today's wedding styling and analyzed wedding styling trends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sought to explain how Korean wedding styling has evolved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dding styling, which contains personal propensity, personality and identity, draws great attention from the world as well as from single women and is perceived as a fashion item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 For nearly four decades since the 1960s, there have been specific changes in Korean wedding styles such as silhouette and color. Depending on customer personality, preferred styles clearly varied. In addition, favorite makeup, hairstyle and accessories have also changed over time. This study has verified changes in different wedding styling trends over time. Wedding styling has created a particular mood suitable to a bride's appearance or offered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ver time.

**Key Words :** Wedding Styling, Make-up, HairStyle, Accessories, History of Transition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in 2014

Received 15 October 2014, Revised 21 December 2014

Accepted 20 Jan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Hyo-Kyung Ro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 Colorist Dae Jeon Health Sciences College)

Email: rora0505@hit.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목적

한국 드라마와 K-Pop이 세계 시장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기 아이돌과 연예인들의 패션과 뷰티 스타일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 충격들이 이제 무덤덤할 정도로 일상화 되어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상징되는 ‘디지털로드(Digital Road)’를 통한 한류의 확산에 그 범위는 대중문화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결혼했어요 글로벌” 편은 최고 스타를 내세워 화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것을 모방하는 이른바 ‘커버 현상’으로 확대되어 웨딩, 뷰티 아이템, 관광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열풍은 태국 및 동남아시아 에서 한국형 메이크업 및 웨딩스타일링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웨딩산업에서 청담동의 세련된 웨딩드레스와 품격 있는 메이크업 등을 선호하고 우리나라만의 세련된 웨딩스타일링을 선보여 새로운 결혼문화의 선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과거 웨딩스타일링은 당시의 유행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결혼의 의미와 상징이 부여된 신부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으로 획일화되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웨딩스타일링은 신세대들의 트렌드와 개성을 반영한 표현지향으로 표출되고 있어 과거의 웨딩스타일링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트렌드에 민감한 웨딩스타일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를 알아 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먼저 웨딩드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Moon(1995)은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 사적 고찰을 통하여 웨딩드레스의 경향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웨딩드레스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하였으며[1], Park(2009)은 20세기말과 21세기초에 나타난 여성 웨딩코디네이션을 비교하여 웨딩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2], Jun(2010)과 Kim(2003)은 웨딩드레스 스타일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의 표현방법[3,4], Lee(2006)와 O(2011)는 대중스타의 시대별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을 통하여

웨딩드레스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5, 6]를 Kim(2002)의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여성의 웨딩드레스 선호도 비교를 통하여 80년대와 90년대의 패션흐름과 웨딩드레스 경향을 토대로 미혼 여성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경향을 분석하였고[7], Park(2011)웨딩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따른 재현과 관련된 연구를[8] Kang(2012)과, Lee(2011), Ryu(2009)는 웨딩 헤어스타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웨딩스타일링에 있어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9,10,11]. 하지만, 현재와 우리나라 과거와의 웨딩스타일링에 관한 연구와 웨딩스타일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관한 차이를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웨딩스타일링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웨딩드레스가 웨딩스타일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이후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를 규명하여 웨딩스타일링의 트렌드가 어떻게 수용되어 새로운 웨딩스타일링을 창출해내는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를 년대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서양의 웨딩드레스가 한국의 전통혼례복으로 대체되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최근 2014년 3월 달까지를 연구대상 범위로 정하였다. 웨딩스타일링의 조형요소가 되는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먼저 1960년대부터 2014년대까지의 한국 웨딩스타일링에 나타난 경향과 흐름을 고찰하고 시대별로 한국 미혼 여성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기록성과 보존성이 있고, 그 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국내 웨딩전문 잡지를 선택하여, 잡지에 실린 화보에서 나타난 웨딩스타일링의 경향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용된 잡지는 국내 웨딩 전문 잡지인 마이웨딩(1996. 3 ~2014. 3)이다. 마이웨딩 잡지가 선정된 것은 1993년도 에 창간되어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랜 기간 고찰 가능한 잡지였기 때문에 선정하였으며 웨딩 전문잡지가 없었던 이전의 자료와 최근의 자료는 웨딩에 종사하시는 20년 이상의 경

력을 지니신 원장님 3명과 전공교수 3명이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진자료와 개인 소장 결혼사진을 사용 하는 절충적 연구방법과 웨딩드레스 관련 패션 매거진,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웨딩스타일링의 개념

웨딩스타일링이란 의상을 포함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되는 아이템을 서로 믹스, 매치시키고 착용자의 개성에 어울리도록 연출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5] 것을 지칭한다. 즉 웨딩스타일링은 웨딩과 관련된 웨딩드레스, 웨딩 메이크업, 웨딩 헤어스타일, 웨딩엑세서리 등을 어울리는 것 끼리 조화롭게 활용하여 매치시켜 매력적이고 통일감 있는 웨딩스타일로 창출해내어 신부의 긍정적 이미지의 효과를 부각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표면적인 아름다움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형성을 통해 마음 깊숙이 녹아 있는 내면의 미까지 표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딩스타일링의 개념을, 웨딩드레스, 웨딩메이크업, 웨딩 헤어스타일, 웨딩 엑세서리를 포함하여 웨딩스타일링으로 정의하였다.

#### (1)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란 서양식 결혼식에서 신부가 착용하는 의상의 총칭으로 브라이달 드레스(Bridal Dress), 웨딩 가운(Wedding Gown), 불어로는 로브 드 마리엔(Robe de marie)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결혼이라는 세속적 행위를 통하여 순수하게 미적인 가치로까지 승화되는 사회적 표현으로, 그 날의 주인공인 만큼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날로 일생에 있어 단 한번 입는 옷으로 행운과 미래의 약속[12]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웨딩드레스는 드레스 외에 크게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 순결과 정숙을 상징하는 브로치, 신부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화관과 베일, 트레인, 부케, 헤드 드레스(Head Dress), 장갑, 모자, 구두, 가터(Garter) 등으로 구성되며, 소재는 실크, 새틴이나 레이스, 툴(Tulle)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3]. 웨딩드레스는 긴 원피스에 트레인

을 바닥에 끌리게 하는 플로어(Floor)길이가 일반적이지만 종아리 정도 길이의 발레리나(Ballerina), 무릎정도 길이의 니(Knee)와 같이 다소 짧은 길이의 웨딩드레스도 있고, 최근에는 미니(Mini) 길이의 웨딩드레스도 선보이고 있다. 즉 웨딩드레스도 시대에 따라 유행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1].

웨딩드레스의 형태는 긴 원피스 형에 트레인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통적으로는 소매 길이가 길고, 어깨와 가슴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4] 소재로는 새틴, 오간자, 쉬폰, 망사, 레이스, 실크 등이 이용 되며 겨울에는 벨벳을 사용하기도 한다. 색상은 주로 흰색이나 아이보리 색상이 사용 된다. 웨딩드레스의 변화가 실루엣, 색상, 소재에 가장 많은 변화와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의 특징을 실루엣, 색상, 소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2) 웨딩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이란 신부가 결혼을 목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Makeup을 웨딩 메이크업이라 하며 결혼 당일 실물은 물론 사진, 촬영에도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Makeup함을 목적으로 한다. 웨딩 메이크업은 신성한 의식인 결혼식에 순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메이크업으로 신부와 신랑의 안면 형과 이미지에 부합되는 분위기, 예식장소, 계절 등을 고려하여 연출하고 신부의 피부톤, 헤어스타일, 웨딩드레스의 디자인과 색, 신랑과의 연령차를 고려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2].

#### (3) 웨딩 헤어스타일

웨딩 헤어스타일은 신부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일반적인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장식과 기교를 부린 인위적이고 특징적인 형태로 머리카락을 다발 지어 정수리 부근에 피스를 사용하여 머리 뒤쪽에서 장식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10] 이 스타일을 업스타일이라고 한다. 업스타일은 여성의 온화한 아름다움을 한층 더 표현 할 수 있는 머리 형태로[8] 크게 시봉스타일과 토대가 있는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고 최근에는 업스타일을 올리는 스타일로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시술 방법과 강조하는 위치와 형태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며 조화 있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짧은 스타일 그대로 살려

주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 내추럴 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에 와서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여성적인 스타일이 강조[9]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웨딩 액세서리**

액세서리는 의복의 일부로 정착하여 의복과 조화를 이루어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10] 사용된다. 웨딩드레스에서 사용되는 액세서리는 베일을 비롯하여 웨딩 헬, 크라운, 꽃, 모자, 리본, 부케, 장갑, 구두, 또는 슈얼리 등이 웨딩드레스와 조화를 이루어 사용되고 있다. 장식적 효과를 내기 위해 머리 위에 꽂거나 쓰는 것들을 총칭하여 헤드드레스(Head Dress)라고 한다.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도 일반 헤어 액세서리와는 달리 우아하고 화려한 보석장식이나 꽃 장식 등이 주로 사용되며 드레스와 같은 색상이나 소재가 사용되고 사랑스런 신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며 신부의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로 본 연구에서는 얼굴부위에 연출되는 것으로 한정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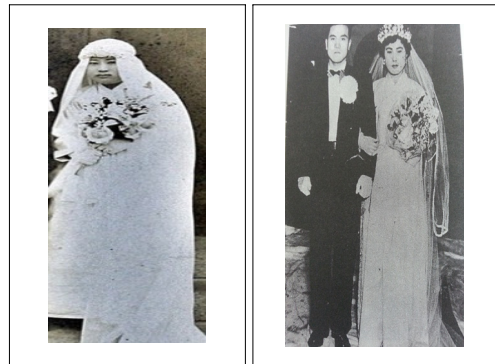
**2.2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역사**

백색의 웨딩드레스가 신부의 일반적인 의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이다. 19세기 중반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중국 문화지향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결혼식의 시작은 모든 제도와 문화가 개편되는 갑오경장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결혼문화 또한 변화되어 과거의 육례·사례의 절차가 간소화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의 전파로 서양의 신부복이 도입되어, 소위 웨딩드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 예복을 입기 시작하였다[13].

서양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1930년대 등장한 예식장에서 대여하기 시작하면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복에 베일만을 착용하는 형식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흰색 치마저고리에 쓰개치마형 베일을 썼으며, 짧은 치마와 긴 저고리로 변화되었다. 그 후 흰색 한복에 이마와 앞머리를 노출시킨 커다란 화관을 쓰고 베일을 착용하는[Fig. 2] 서양의 웨딩스타일을 혼용하는 시기를 거쳐 1950년대 말 본격적인 서구식 웨딩드레스가 널리 보급 되었으며, 한국에서 서양식 드레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대를 기점으로 신부의 예복으로 널리 입혀지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14] 화관, 목걸이, 귀걸이, 부케, 리본, 장갑 등의 액세서리를 갖추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웨딩스타일링의 형태로 갖추어 졌다.

이러한 신식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1970년대에 신부의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해졌다. 또한 일부 패션형태의 H 라인, A 라인의 패션경향이 웨딩드레스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롱 베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웨딩드레스가 가장 화려해진 시기로 영국 다이애나 스펀서의 웨딩드레스 영향으로 어깨와 소매가 부풀려지는 퍼프소매와 치마가 길게 부풀려지고 늘어지는 형태의 복고적인 웨딩드레스와 아이보리색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는 풍성한 스커트가 사라지고 슬림한 형태가 유행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해진 드레스와 심플한 디자인과 어깨라인이 드러나는 오프 더 숄더 드레스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현재 2010년대에는 개성을 중시하고 해외 유명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패션 트렌드가 대담하게 접목되어 섬세한 디테일의 표현, 비즈와 보석 등을 사용한 장식적인 디자인과 이러한 장식적 요소들이 배제된[1] 심플하고 세련된 깔끔한 디자인의 수준 높은 변화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Fig. 1]1930's The First Weddingdress [Fig. 2] 1957's Weddingdress

**3.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갑오경장 이후 서구 문화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결혼 문화에 변화가 오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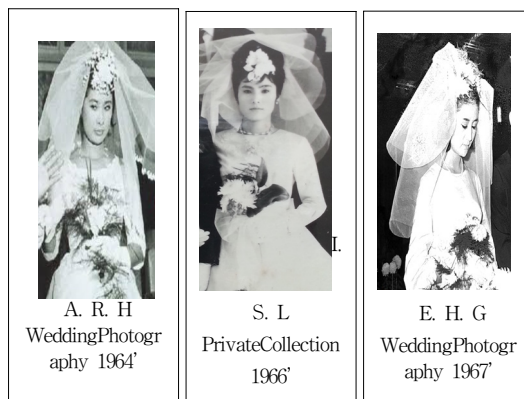
작하였다. 1950년대 말 흰색 한복과 서양드레스를 혼용하는 시기를 거쳐 웨딩드레스의 형태, 색상 등이 시대와 종교,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한국에 신식 웨딩드레스가 가장 보편화되기 시작하여 웨딩 메이크업과, 웨딩 헤어스타일, 베일, 귀걸이, 목걸이, 화관 등의 액세서리로 구성되어 웨딩스타일링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변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1 1960-1970년대의 웨딩스타일링

1960년대의 웨딩드레스는 스포티하고 경쾌한 스타일의 경향으로 웨딩드레스가 단순한 스타일로 바뀌며, 허리선을 강조하지 않은 A 라인, H 라인의 하이웨스트에 목선을 판 드레스를 입었으며, 패티코트가 약해지고 베일이 유행하였다. 베일은 짧은 베일을 두 겹으로 뺏뺏하게 화관 위에 세워져 신부의 키를 커 보이게 하였으며[1], 트레인을 길게 늘어뜨려 드레스를 화려하게 연출하였다. [Fig. 3]은 디자이너 앙드레김이 디자인 한 웨딩드레스로 1964년 화제를 모아 웨딩드레스 붐을 일으킨 영화배우 엄앵란의 웨딩드레스이다. 엄 씨의 웨딩드레스는 요즘 드레스와 달리 소매가 긴 A라인의 실루엣에 라운드 네크라인과 공단 소재의 긴 슬리브와 망사로 된 짧은 베일에 꽃장식의 화관을 착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고 있다. 웨딩 메이크업은 하얀 분 화장에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과 오렌지, 핑크, 빨강, 계통의 립스틱이 유행하였다. 헤어는 업스타일로 올려 앞머리를 내려 귀여운 신부의 모습을 연출하거나, 올림머리로 탑 부위를 꽃사지로 강조한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결혼식에서 한복이나, 전통혼례는 거의 사라졌고,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해졌으며, H 라인과 A 라인 등의 허리선을 강조한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다. 또한 어깨선을 강조한 하이 네크라인과 긴소매에 퍼프소매와 러플스커트가 유행하고 롱베일이 등장하며 레이스 소재의 사용으로 시스루의 효과를 내어 웨딩드레스가 화려해졌다. 이 시기엔 컬러 사진의 도입으로 웨딩드레스의 장식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던 시기이다[2]. 메이크업은 서양 메이크업의 영향을 받아 다소 진한 피부표현과 하이라이트, 코에는 노즈 새도를 넣어 윤곽을 강조한 입체적인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네이프 쪽에

포인트를 준 업스타일과 자연스럽게 연출한 머리에 베일과 웨딩헬을 장식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액세서리는 진주목걸이에 큰 귀걸이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



[Fig. 3] 1960's Wedding Photo



[Fig. 4] 1970's Wedding Photo

### 3.2 1980-1990년대의 웨딩스타일링

1980년대의 웨딩드레스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풍성해지고 실크, 오간디, 공단 소재의 사용이 증가 하였다. 색상 또한 흰색 보다는 아이보리 색상을 선호했던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개인소장용 및 대중스타들이 착용한 드레스를 보면 어깨를 크게 부풀린 퍼프소매에 셔링이 많은 플레어스커트 형태의 X 라인과 뒷 트레인이 길게 끌리며 목선을 대담하게 드러낸 스타일이 많았다. 고전적인 A라인이나 유연한 흐름의 직선형 실루엣이 등장하고 레이스 장식이 두드러졌으며, 이전의 흑백방송 시대와 달리 칼라방송 이후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이 구슬, 프릴, 테이프 장식 등 우아하고 화려하면서 다양

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0년대는 메이크업의 화려함이 강조되어 다양한 컬러가 많이 선보였다. 피부 톤은 70년대보다 자연스러워졌으나, 새도색상은 색 자체에 떨어지기 쉬운 퍼플, 블루색상 등을 사용하였고, 입술은 핑크계통의 색상으로 매트하게 표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헤어 연출은 복고적이고 풍성하게 부피감을 살린 스타일이 많았고, 앞머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뺀 스타일이나 뺨뿔을 넣어 높이 세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11][ Fig. 5]. 액세서리는 큰 장식의 진주, 꽃 모양의 귀걸이와 머리장식은 진주화관이나 꽃사쥬, 주름 접은 면사포로 화려하고 풍성하게 연출한 장식이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80년대 공주풍 웨딩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되어 레이스, 프릴, 리본 등의 장식효과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90년대 후반 전체적인 장식이 절제된 심플하고 미니멀한 웨딩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슬림앤티스타일과 A 라인에 타이트 소매, 반소매 등이 인기를 끌며 실크, 자카드, 타프타 등의 소재가 사용되었다[5]. 하회라의 웨딩드레스는 과장된 X 라인의 오프더 숄더 네크라인에 코사쥬와 금색의 트리밍 장식으로 화려함을 장식하였다. 색상은 아이보리색상이 강세를 보였다. 웨딩 메이크업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브라운색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었으며, 후반에는 김현자씨의 소장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매를 강조하는 아이홀 메이크업으로 또렷한 인상을 연출하고 오렌지, 브라운 등의 립색상이 연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6].



[Fig. 5] 1980' s Wedding Photo

헤어스타일은 백포인와 네이프 포인트에 볼륨감을 형성하여 깔끔하고 고전적인 단아한 이미지와 꽃장식을 연결한 긴 베일의 장식이 특징인 것을 볼 수 있다. 액세서리의 형태는 큰사이즈의 진주귀걸이가 화이트, 실버톤으로 연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6] 1990's Wedding Photo

### 3.3 2000-2010년대의 웨딩스타일링

2000년대 웨딩드레스는 실루엣이 단순화되어 A 라인이나 H 라인 등 전체적인 라인이 몸의 곡선을 따라 흘러 내리는 차분한 실루엣이 주종을 이루었다. 실크 소재에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럽게 연출된 심은하의 웨딩드레스는 순백의 세미 인어라인 톱 드레스로 절제된 장식과 단아하면서 깔끔함이 특징이다. 타프타 소재의 화려한 드레스에 깊게 파인 V 네크라인, 상체부위에 화려한 비딩 장식으로 연출된 한체영 드레스, 실크 소재의 블망레이스와 절제된 장식과 실크 소재로 된 우아한 라인의 김현순씨 웨딩드레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꽃무늬, 자수, 크리스탈 등 유색 보석을 사용한 섬세하면서 화려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웨딩 메이크업은 정형화된 스타일에서 점차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유행되어 차분하고 은은한 아이메이크업과 입술 색을 살린 누드 톤의 글로시한 립메이크업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헤어스타일은 네이프에 포인트를 준 시봉 스타일로 고전적이면서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액세서리는 티아라에 롱베일과 귀걸이만 착용하여 깔끔하면서 단아한 스타일로 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7].

2010년대에 들어와서 쉽게 대여가 가능한 수입 웨딩

드레스를 찾는 신부들이 많아졌고 이국적이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다. A 라인의 탑스타일로 가슴라인이 하트모양이 잡혀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고소영 웨딩드레스는 풍성한 꽃장식과 레이스의 부드러운 촉감에 비딩장식을 사용한 천연소재로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체 곡선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H 라인의 머메이드라인을 선보인 배우 전지현의 웨딩드레스도 가슴선이 드러나는 캡소매와 시스루 원단과 레이스 소재에 화려한 비즈가 수놓아져 럭셔리 하면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움을 살린 스타일이며, 김효진씨 소장인 웨딩드레스는 풍성한 툴 소재와 스커트에 블망레이스, 긴소매의 블레로를 믹스 매치한 A 라인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8]. 웨딩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투명해진 상태에서 내추럴한 피부표현에 깨끗한 물광 및 도자기 표현의 피부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레이, 카키, 블루, 아이스핑크 등의 차분한 색상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립메이크업은 틴트를 사용하여 입술에 포인트를 주거나, 선명하게 빛나는 레드, 핑크 계열의 립글로스를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선보였다. 헤어 스타일은 우아하게 넘겨 네이프에 볼륨을 준 시봉 스타일에 티아라로 장식하고 자연스럽게 볼륨을 살려 연출한 로맨틱한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액세서리는 화려함 보다 크리스털과 다이아몬드로 세팅된 깔끔한 스타일이유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시대별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Fig. 7] 2000' s Wedding Photo



[Fig. 8] 2010' s Wedding Photo

(Table 1) The History of Korean Wedding Styling

| Division Year | Wedding dress  | Wedding Make-up   | Wedding Hair  | Wedding Accessories   |
|---------------|--|---|---|---|
| 1960-70       | A Line, H Line<br>Longsleeves.<br>Meshsleeves<br>Satin,Lace,Chiffon<br>White, Ivory      | Eye brow: Angular form<br>Skin: Thick<br>Shadow: Wine, Orange,<br>Brown Color makeup<br>Lip: Mat Red, Pink            | Up style<br>Part bangspoint<br>Top point, Backpoint<br>Let down, Hair fell<br>loose | Short&Longveil<br>Buyflowers,<br>Corolla, cap<br>Head dress<br>Pearl necklace,<br>earring |
| 1980-90       | A Line , X Line<br>Longsleeves.<br>Satin, Slik<br>Organza, Taffeta<br>White, vory        | Eye brow: Basic&Arch<br>form<br>Skin: Thick&Natural<br>Shadow: Pink, Purple,<br>Eye Hole makeup<br>Lip: Orange, Brown | Up style<br>Top point<br>Hair volume utilizing<br>the wave                          | Long veil<br>Ribbon, Hairpin<br>crown, pearlcorolla<br>Drop, button<br>Earring            |
| 2000-2010     | A Line , Empire Line<br>Mermaid Line<br>Cap sleeves.<br>Embroidery, Slik, Tulle<br>White | Eye brow: Basic&Arch<br>form<br>Skin: Bright, Water light<br>Shadow: Ice pink, peal<br>Lip: Glossy, Tint              | Up style<br>Tidy Sinyong  | Various crown<br>t-ara<br>Long veil<br>Small button<br>Earring                            |

## 5. 결론 및 제언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는 결혼식 때 착용된 웨딩스타일링이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있었다. 1960년대는 웨딩드레스 하체에 볼륨을 강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헤어스타일과 앞머리부분에 포인트를 주었고 짙은 화장과 대체적으로 짧은 베일을 착용한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의 큰 변화요인으로 디테일이 사라지고 롱 베일의 등장과 섬유의 발달로 소재가 다양해졌으며 높은 목선과 긴 슬리브, 비치는 레이스 소재, 웨딩 캡을 사용한 헤어장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0년대는 패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웨딩드레스가 가장 화려해졌으며, 셔링이 많은 플레어 형태와 어깨와 소매를 부풀린 퍼프소매가 유행하였고 아이홀 메이크업을 강조한 강한 메이크업과 앞머리 부분을 높게 살린 헤어스타일과 롱베일이 유행한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는 풍성한 실루엣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X 라인 경향을 보였으며 레이스, 리본, 프릴장식으로 로맨틱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톱스타들이 많아지면서 수입 드레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관련 쇼의 증가로 수입 웨딩드레스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고급스럽고 심플함을 지향하며 전체적으로 슬림한 실루엣에 레이스, 비즈, 크리스탈로 장식한 형태로 연출되었다. 순수함을 지향한 내추럴한 메이크업과 깔끔하게 포니테일을 한 헤어스타일, 작고 귀여운 버튼 형태의 귀걸이 착용으로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는 해외 유명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패션 트렌드가 대담하게 접목되어 화려하면서 단순한 형태의 슬림한 A 라인, H 라인 실루엣의 웨딩드레스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우아한 레이스의 사용과 섬세한 디테일의 표현, 비즈와 보석을 사용하여 심플하면서도 화려함을 강조하였으며, 헤어는 탑부위와 네이프 부위에 포인트를 준 시농(쑤머리) 스타일, 단정한 정통 시농 스타일등 이 다양하게 연출되어 클래식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메이크업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피부 톤의 도자기 피부와 맑고 투명한 피부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펄을 사용하여 신비로운 눈매를 연출하고 속눈썹을 풍성하게 강조해 세련된 귀족적 이미지를 강조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처럼 본 연구의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를 볼 때 결혼식 때 착용한 웨딩드레스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실루엣, 색상 등 디테일의 변화가 있었으며, 개성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확연히 구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또한 신부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단점을 감춘다는 기본 조건은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 유행 패턴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세서리도 시대와 트렌드에 따라 선호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 시대별 웨딩스타일링의 유행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웨딩스타일링은 신부의 외모에 뚜렷한 분위기 또는 의미 있는 특징을 부여하고 신부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되며 그날의 기억을 좌우할 만큼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중스타들이 결혼식 때 착용한 웨딩스타일링이 일반인들의 웨딩스타일링의 유행경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양의 웨딩드레스가 도입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의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를 통하여 시대에 따라 개성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확연히 구분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수용되어져 웨딩스타일링의 유행경향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한국 웨딩스타일링의 변천사로 본 웨딩스타일링은 앞으로의 웨딩스타일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웨딩스타일링을 재현해보고 시뮬레이션으로 도출시킨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웨딩스타일링을 창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in 2014.

## REFERENCES

- [1] Yun-Kyung Mun, Historical Asepect of Wedding Dress in Korea, Sungshin Women's University. 1995.



- [2] Hyun-Ju Park, A Comparison of Woman's Wedding Coordination between the End of 20th and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Kyung Sung University. 2009.
- [3] Won-Hee Jun, An Analysis of Expression Traits in Fashion Image Shown. Kyung Hee University. 2010.
- [4] Hyang-Nam Kim, A Study on the total coordination at the view of the wedding dress image, SunsKunkwan University. 2002.
- [5] Eun-Jung Lee, Guung-Hae Chang,, , A Study on Wedding Dress Design of Popular Sta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8. No. 2, pp. 258, 2006.
- [6] Ji-Hye O, Study about Developing the Wedding DressDesign&Utilizing the Virtual Fitting Application Content.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7] Gye-Hyoung Kim, Comparison of Korean Women's Preference for Wedding Dress, KonKuk University. 2002.
- [8] Young-Hee Park, A Study on Wedding hair and make-up orbridesaccording to different period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1.
- [9] Jeong-Im Kang,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Wedding Hairsty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13. No. 4, pp. 191, 2012.
- [10] Kee-Bong Lee, Study for Up-style Characters on TV commerci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 12. No. 2, pp. 165, 2011.
- [11] Hyun-Jue Ryu, The Research of Wedding Dress and Up Style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15. No. 4, pp. 142, 2009.
- [12] Sang-Min Nam, Manner's Learning, Seoul: ParkYoung Publisher, p.132, 1996.
- [13] Maria Mcbride-Mellinger The Wedding Dress New York: , Random House, p.15. 1993.
- [14] Jeon Won Gil More,8, Korea Life and Culture 100years. Seoul: Jang Won, p.161, 1995.
- [15] Photo Excerpts My Wedding, JungAng Publisher, 2000, 2005, 2007, 2010, 2012, 2013.

노 효 경(Ro, Hyo-Kyung)



- 2006년 2월 : 대전대학교 이학박사
- 2001년 8월 : 한성대학교 예술학석사
- 2012년 2월 : 한밭대학교 미술학사
- 2008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패션코디·컬러리스트과 교수
- 관심분야 : 패션코디네이션, 색채
- E-Mail : rora0505@hit.ac.kr